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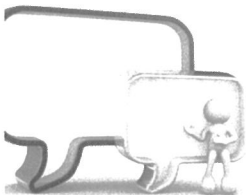
## — 그건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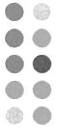
### 2030년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이슈

중소기업중앙회 등 33개 경제단체 및 38개 발전·에너지기업은 지난 6월 1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발표문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8월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감축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이슈

중소기업중앙회 등 33개 경제단체 및 38개 발전·에너지기업은 지난 6월 1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발표문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8월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감축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sub>2</sub>-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sub>2</sub>-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 그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 (제1안)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
- (제2안)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
-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
- (제4안)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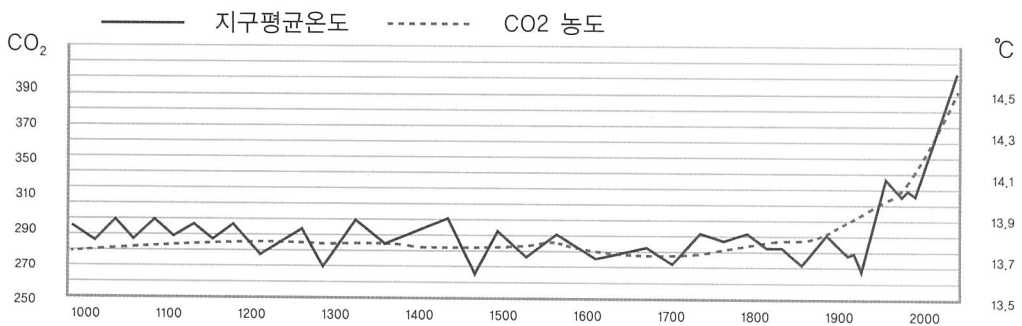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월)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6월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지난 6월 16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면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1. 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매년 전세계 GDP의 2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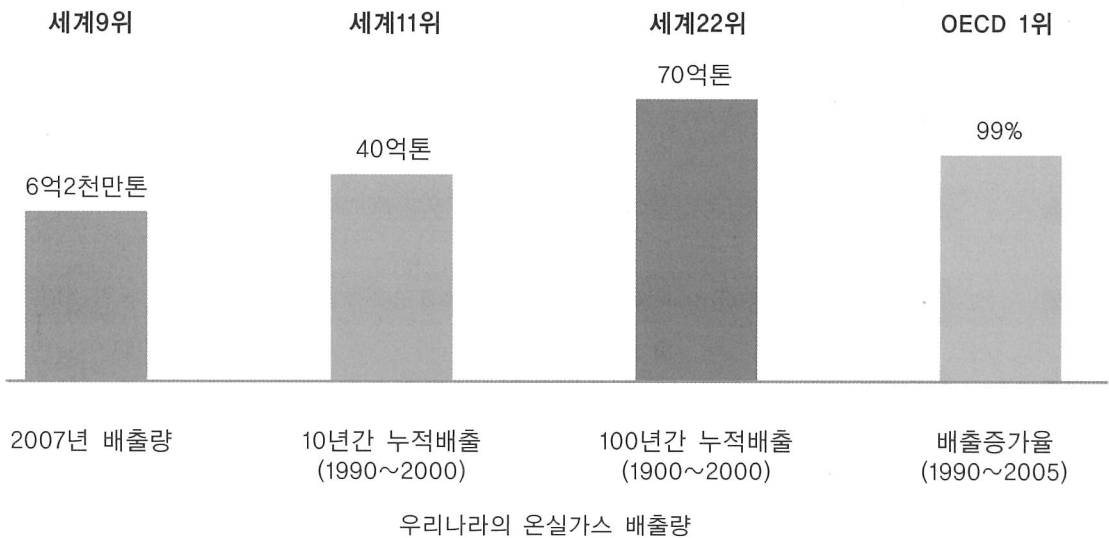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피해양상 : 초강력태풍, 홍수, 폭서, 흑한, 가뭄, 사막화 등



기후변화 방지시 금세기 말까지 최대 6.4도 상승 (IPCC)

## 2. 대한민국은 왜 감축에 동참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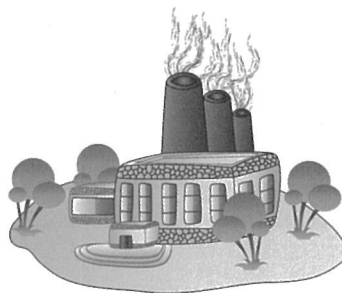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2007년 기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오는 2020년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 설립에 따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3.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2008년 7월 개최된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공언한 이래로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60년 국가 비전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량적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post 2012 기후변화 협상을 대비하여 선제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그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국가감축 목표설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관하에 주요 관장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사결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단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